

Re-NEWable Weekly

[신재생에너지/ESG] 조혜빈 선임연구원

발간일자: 2026. 07. 27

7월 4주차 코멘트

- 지난주 코스피가 1.91% 하락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기대가 작용했으며, 실적 발표와 개별 기업 이벤트가 더해진 것으로 판단. 다만 유가 모멘텀의 지속성은 낮아 향후 주가 흐름은 실적과 정책 이벤트에 따라 종목별로 차별화될 전망
- Meta가 가입 10년 만에 RE100에서 이탈. 형식은 자발적 탈퇴이나 신규 가스발전 투자로 기술요건 충족이 어려워졌다는 Climate Group의 설명을 감안하면, 공개 미달 판정을 앞둔 사전 퇴장으로 판단. 핵심은 가스발전 보유 자체가 아니라 인증서로 상쇄할 수 없는 계통 비연계 전용 가스 조달임. 승인된 오하이오와 유타 전용 가스발전은 1.3~1.6GW로 Meta의 2024년 평균 전력부하의 64~75%에 해당함. 반면 루이지애나 Hyperion용 7.5GW는 경제적으로는 전용이나 물리적으로는 계통연계 구조임. Meta는 이탈 당일에도 150MW 태양광 PPA를 발표한 만큼 재생에너지 조달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가스를 병행하며 RE100 기준선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 중국, 15차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서 2030년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28억kW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량은 2025년 대비 53% 늘릴 계획. 상위 에너지 계획에서는 2030년 비화석 전원이 전체 발전량의 50%, 풍력과 태양광이 30%를 담당한다는 목표를 제시.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를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하고, 가격 신호를 활용해 전력사용을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유도하며 녹색전력 직결, 가스발전소,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등을 지원할 계획. 전용 가스발전으로 계통 제약을 우회하는 미국과 달리 데이터센터 입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함께 설계하는 계획형 접근으로, 국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및 분산에너지 정책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한편, 폴리실리콘 구조조정도 자율 감산에서 강제 기준으로 이동하며 기존 생산능력의 약 45%만 강화된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 중국 내 공급과잉 완화에는 긍정적이나, 기준 미달 설비 상당수가 이미 가동을 중단해 단기 수급 및 가격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전력 수요는 가속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조달은 태양광 단독에서 저장장치 결합으로 이동 중임. IEA는 세계 전력 수요 증가율을 2026년 3.6%, 2027년 3.8%로 전망했으며, 재생에너지는 2026년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유럽에서는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PPA 오퍼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계약가격은 태양광 단독보다 24% 높지만 풍력보다 15% 낮은 수준. 낮 시간대 전력가격 하락이 잦아지면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공급할 수 있는 ESS 결합형 PPA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규모의 지연 및 허수 발전사업을 9월까지 순차 점검함. 해상풍력에는 이용개시 5년 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3년 전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점검이 도입됨. 회수된 계통 용량이 실제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되는 구조로, 계통을 선점한 장기 지연 사업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 프로젝트 가시성 제고에 우호적으로 판단
-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언에서 정책 톤의 미세 조정이 확인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원으로 한빛 원전 6기와 지역 재생에너지의 조합을 제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로만 전환할 경우 독일처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강조함.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와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기요금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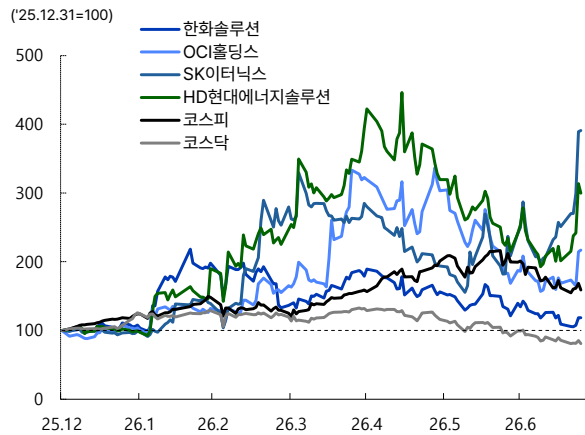
NEWS [국내]

7/19	전력망 쓴다고 해놓고 진척 없네...'허수 발전사업' 점검 강화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7월 20일 시행	연합뉴스	https://buly.kr/FWvUL2k
7/22	"날씨따라 들쭉날쭉 재생에너지론 못 돌린다"... AI 데이터센터, LNG 직접 PPA 요구 ▶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 삭제됐던 LNG 직접 PPA 허용 논의 재부상	조선비즈	https://buly.kr/Aln1r3d
7/24	김성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물, 전력 공급 가능...2029년 말까지 준비"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팹 4기 기준 일 65만톤 용수 및 6.3GW 전력 필요. 한빛 원전 6기와 지역 재생에너지 조합 제시	이투데이	https://buly.kr/DwGvJf
7/24	김성환 "재생에너지로만 가면 전기요금 크게 오를 수 있어" ▶ 재생에너지 단독 전환 시 독일식 요금 급등 우려 언급. 산업용 요금 한국 180원/kWh 제시	서울신문	https://buly.kr/CB75hZB
7/26	AI가 전력 과잉, 부족 읽는다... 제주, 분산형 전력망 통합 착수 ▶ 제주 인공지능 기반 분산형 전력망 통합 착수. 예산 1.4 억원, 11 월까지	파이낸셜뉴스	https://buly.kr/3JAicPV

NEWS [해외]

7/20	UK's AR8 application window opens, CIB budget set at GBP 515m ▶ 영국 CfD 8차 입찰 개시, 공급망 지원 예산은 5.2억파운드	Renewables Now	https://buly.kr/5fF3QpC
7/20	US wind greenfield outlook lifts 5% as developers target more than 53 GW through 2030 ▶ 세액공제 종료 전 착공이 몰리며 미국 풍력 5년 전망 5% 상향	Wood Mackenzie	https://buly.kr/EdvhSRE
7/23	China unveils five-year plan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중국, 신규 데이터센터 입지를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하고 녹색전력 직접공급 확대 추진	중국국무원	https://buly.kr/614ZOSx
7/23	Global electricity demand growth set to accelerate as power systems adjust to recent shocks ▶ 세계 전력수요 증가율은 '27년 +3.8%, 재생에너지는 '26년 최대 전원으로 부상 전망	IEA	https://buly.kr/ET0wTd2
7/23	Hybrid PPAs see growing adoption in Europe despite a 24% premium over solar PPAs ▶ 유럽 내 태양광 수익성 저하에 대응해 ESS 결합형 PPA가 확산	PV magazine	https://buly.kr/883fAGU
7/23	Flexible contracting framework aims to help renewables meet data center energy demand 호주, 데이터센터 장기 PPA를 통해 신규 태양광 및 ESS 투자를 유도하는 계약체계 제안	PV magazine	https://buly.kr/CB75j23
7/23	Meta drops out of a major clean energy pact as its natural gas buildout accelerates Meta,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가입 10년 만에 RE100 탈퇴	TechCrunch	https://buly.kr/EzlCOzr
7/24	China adopts tougher mandatory energy limits for polysilicon plants 중국, 2027년부터 폴리실리콘 에너지 소비기준을 강화하며 노후, 고원가 설비 퇴출 압력 확대	PV magazine	https://buly.kr/8TtB7uE

[도표 1] 태양광 커버리지 종목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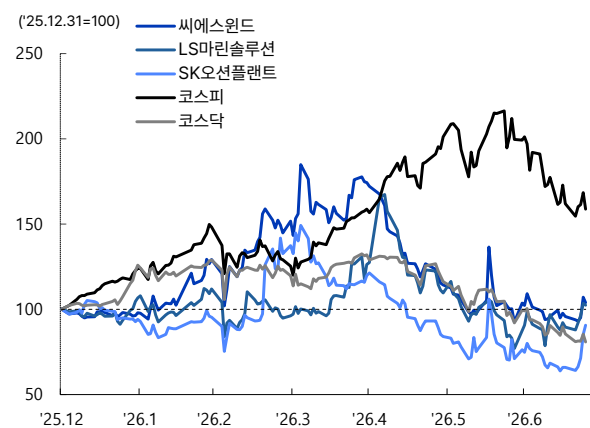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태양광 커버리지 종목 주가 수익률

(%)	1W	1M	3M	6M	12M	YTD
한화솔루션	8.7	-10.7	-35.6	7.1	-16.1	18.7
OCI홀딩스	28.7	17.9	-34.9	102.3	180.3	117.0
SK이터닉스	55.6	114.3	48.4	304.7	228.9	290.8
HD현대에너지솔루션	49.0	34.0	-14.1	192.9	232.3	199.8
KOSPI	-1.9	-21.0	3.3	34.1	109.7	58.8
KOSDAQ	-5.5	-17.7	-37.9	-24.7	-7.6	-19.2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풍력 커버리지 종목 상대주가 추이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풍력 커버리지 종목 주가 수익률

(%)	1W	1M	3M	6M	12M	YTD
씨에스윈드	8.4	3.9	-41.0	5.9	-11.9	3.9
LS마린솔루션	14.4	20.7	-19.1	9.5	11.1	2.3
SK오션플랜트	37.6	29.2	-20.7	-4.5	-8.1	-9.4
KOSPI	-1.9	-21.0	3.3	34.1	109.7	58.8
KOSDAQ	-5.5	-17.7	-37.9	-24.7	-7.6	-19.2

자료: QuantiWi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 2026.06.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4.7%	4.6%	0.7%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